

# 페트병으로 옷 만들고, 脫 플라스틱 선언 ‘유통가의 ESG’

블랙야크 ‘고고 챌린지’ 캠페인  
재생섬유 활용 의류제작 등 약속

노스페이스 페트병 리사이클링  
빅샷·라이트 팝업 백팩 제품 출시

애경 등 국내대표 뷰티 기업들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블랙야크 본사에서 New Life Tex TF팀이 ‘고고 챌린지’에 동참,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비와이엔블랙야크

ESG가 기업들의 새로운 글로벌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유통기업들도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ESG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하는 경영 트렌드를 말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비와이엔블랙야크(블랙야크)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脫(脫) 플라스틱 실천 운동인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며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

고고 챌린지는 깨끗한 지구환경을 위

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약속한 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블랙야크는 이 캠페인을 통해 수입 페트병이 아닌 국내에서 사용된 페트병을 활용해 K-rPET(케이-알피티)

재생섬유로 의류·용품을 만드는 자원 순환체계 구축 확대를 약속했다.

패션업계 내 또 다른 친환경 활동 선두주자 노스페이스는 페트병 100% 리사이클링 소재를 결합에 적용한 ‘에코 백팩 컬렉션’을 지난달 29일 출시했다.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백팩 ‘빅 샷’과 파스텔톤의 ‘라이트 팝업 백팩’이 제품 하나당 각각 500ml 페트병 19개, 21개

를 재활용해 탄생한 것이다.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만의 친환경 기술과 디자인이 가방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용품 등 전 제품군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어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스페이스는 현재 홍보대사 김요한과 함께 에코 백팩 빅 샷을 중심으로 패션 감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친환경 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댄스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 중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삼다수(제주개발공사), 효성티앤씨 등과 친환경 프로젝트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수거한 폐페트병 100t으로 만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이달 중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 로레알코리아,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국내 대표 뷰티 기업들은 지난달 27일 화장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Beautiful us, Beautiful earth’ 슬로건을 토대로 4R 활성화를 추구한다. 4R은 ▲재활용 어려운 제품 100% 제거(RECYCLE) ▲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REDUCE) ▲리필 활성화(REUSE) ▲판매한 용기의 자체회수(REVERSE COLLECT)를 말한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 및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이번 선언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업계의 고민이 결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화장품 기업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철강업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산업부 ‘그린철강위원회’ 출범  
“저탄소사회 이행 선택 아닌 필수”

온실가스 최대 배출업종인 철강업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에 호응해 탄소 배출 저감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성윤모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과 제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린철강위원회는 철강업계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학·연·관 협의체다. 한국철강협회 최정우 회장(포스코 회장)과 연세대 민동준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김학동 포스코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등 6개 철강기업 CEO와 학계·전문가가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산업계가 과감한 기술혁신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업종별, 기술혁신·표준화 등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내에 ‘2050 탄

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주도 한계돌파형 기술개발과 기업의 신속한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인허가 및 일괄의제·규제특례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도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는 비상한 각오를 밝히고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 탄소중립은 철강업계가 과거에 극복해 왔던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여러 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도전으로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산업으로 전환해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철강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 ‘2050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국내 산업계 최초로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의료진은 화이자, 고령층은 AZ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이달중순 화이자 6만명분 첫 확보  
상반기중 AZ 백신 22만명분 공급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전문가 자문단에서 조건부 허가를 권고받으며 접종 9부능선을 넘었다. 빠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물량 가운데 6만명분 규모가 국내 가장 먼저 들어온다. 이 물량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우선 접종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처음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상반기 중 22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백신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접종될 것으로 보여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 검증 자문단’이 1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자문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시청에서 시민 대상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은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와 미국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자료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는 자문단 중 다수가 고령자에 제한 없이 투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국내 예방 일정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약 75만명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는데 1분기 접종자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다.

대다수의 자문단은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상 참여 비중은 7.4%(660명)지만, 이들을 포함한 전체 피험자에서 효과·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연령 제한 없이 18세 이상에 승인한 점을 볼 때, 국내도 같은 방향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문단의 소수에선 고령자 자료가 부족해 예방 효과가 입증 안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후 중앙약심에서 고령자 접종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으로 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역시 중앙약심 자문 결과 접종 대상군이 검증자문단 보다 더 협소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빠르면 2월 말부터 시작해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에 대한 접종을 11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세경·김현정 기자 hjk1@

## SK이노, 중서 배터리교체 스테이션 서비스

》1면 ‘산업계, 차세대 성장·서 계속

‘BaaS’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BaaS는 배터리 렌탈, 충전, 재사용,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서 주유소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방전된 배터리 팩을 충전된 배터리팩으로 통째

로 교체해주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LG화학과 GS칼텍스는 충전소에서 수집한 전기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터리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올해까지 실증 사업 완료 후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국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 141억 긴급투입

서울시교육청, 8일까지 신청접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14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퇴원 유아 증가로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5월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원 고용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 141억원이 투입된다. 1~2월 원격수

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하고, 소속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또한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오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lhj@